

지스트 인공지능연구소 - GG56코리아, 인공지능(AI) 분야 업무협약 체결

- 인공지능 활용한 신사업 분야 도출을 위해 공동협력 체계 구축 및 상생 발전 도모



▲ 지스트 인공지능연구소(소장 이흥노)와 GG56코리아(대표이사 김영군)는 최근 인공지능 신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체결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GG56코리아 김영군 대표이사, 한승수 창립자, 지스트 인공지능연구소 이흥노 소장, 김항진 리버밴스 전략이사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인공지능연구소(소장 이흥노)와 글로벌 블록체인 IT 플랫폼 전문기업인 **GG56코리아**(대표이사 김영군)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산업 분야 진출을 위해 공동협력 체계 구축 및 상생 발전 도모를 위한 MOA(합의각서)**를 최근 체결했다.

GG56코리아는 만족도 평가 시스템 SoT(Satisfaction of Things)를 메타버스와 접목해 만족도·선호도·여론·성향조사 등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핑거레이트 2.0'을 서비스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데이터 스타트업**으로,

백신 접종 및 코로나검사 음성 결과 인증 디지털 통행증 솔루션인 '패스엔고(Pass&Go)', 블록체인 프로젝트 비투어체인(MSOT) 등을 개발해 왔다. 올해 상반기 (주)YBM, (주)유한양행 등으로부터 300만 달러(한화 약 37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스트 인공지능연구소가 보유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과 GG56코리아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 관련 신산업 분야 추진을 위한 협력 ▲인적 교류 및 정보 공유 ▲정부와 지자체 및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 분야 도출 등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부분 및 주요 사업(FingeRate, SoT)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지스트 인공지능연구소 이흥노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인공지능 분야에서 양 기관이 향후 글로벌 사회를 크게 혁신할 수 있는 **신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협력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GG56코리아 김영군 대표는 "지스트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참여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체계를 고도화**시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스트 인공지능연구소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인공지능 기술 확산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다. '스마트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AI, Blockchain, Cloud, Data (ABCD) 기술을 융합해 연구 성과와 인프라 구축, 국책과제 추진, 산학협력을 목표로 구체적 사업들을 기획 및 추진하고 있다.